

韓國 펄프·製紙工業의 現況과 展望

韓國펄프·종이工學會

會長 辛 東 韶

펄프·製紙工業은 본래 다른 製造業에 비해 投資 回轉 期間이 길고 에너지 消費 産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原料의 輸入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現在로선 國際競爭力이 상당히 뒤떨어진 實情이다

1985 年에 全 製造業과 比較하여 製紙工業의 比重은 1.67%, 輸出 比重이 0.19%, 雇傭比重이 0.59%이다.

1980 年代初의 經濟 沈滯期間을 벗어나 점차 發展段階로 들어섰다고는 하나 지난해인 1985 年은 國內外的 景氣 不振으로 인해 펄프·製紙産業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伸張率을 나타냈다.

1985 年中 紙類의 總生産量은 2,312,000 ㄱ으로 1984 年에 비해 4.8% 增加하였으며 出荷量은 2,294,000 ㄱ으로 4.9%가 增加하였다.

物量面에서 보면 製品의 生産과 出荷의 增加率이 比較的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國際 原資材 價格이 安定勢를 維持해 주었고 原價 節減을 위한 각 企業體의 努力으로 플러스 成長이 維持,發展되고 있는 추세이다.

施設面에 있어서는 紙類의 需要增加 趨勢에 對備하여 1984 年부터 增設을 始作하였던 工場들이 계속 完工되면서 1990 年에 들어서는 國內 紙類需要를 自給할 수 있을 展望이다.

紙類의 輸出量은 109,000 ㄲ으로 26.7 %나 增加한 반면 內需 出荷量은 2,170,000 ㄲ으로 3.8 % 增加에 그쳤다.

1985 年度의 GP (쇄목펄프) 및 CP (화학펄프)의 生産量은 각각 138,000 ㄲ, 129,000 ㄲ이며 화학펄프의 輸入量은 541,000 ㄲ으로 自給率 이 19.2 %에 불과하다 펄프 輸入을 위해 196,000,000 달러가 소요 되었고, 그 밖에 701,000 ㄲ에 93,000,000 달러의 古紙를 輸入하였으며 古紙自給率이 54 % 수준으로 前年度의 56 %에 비해 약간 減少했다. 특히, 國內 CP의 生産量은 400 ㄲ으로 國際競爭力의 適正規模 700~ 800 ㄲ보다 零細하고 1985 年 國內 化學펄프의 生産原價는 北美地域에 비해 40 ~ 45 % 높아 國內 펄프價格은 여전히 問題點으로 남아 있 지만 차츰 解消되고 있다.

國內 펄프·製紙工業의 性格을 감안할 때 單純한 1次 加工에서 脫皮하여 高附加價値 製品 生産으로 誘導하는 것이 妥當하다. 최근 自 動化시스템의 革命, 情報化時代 및 包藏革命 등에 수반한 記錄用紙, 情報·産業用紙, 包藏用紙의 需要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對處하여 國內 製紙工業의 健全한 育성과 함께 技術集約的인 加工紙, 特殊紙 生産을 위한 基盤을 鞏固히 하여야 한다.

이런 一連의 課題를 解決하는 關鍵은 基礎研究, 應用研究, 人材養成 등이 先決되어야 하므로 國內에 教育 및 研究機關의 設立이 要望된 다.